

오케이온골프웹진을 스마트폰에서 보기 위해서는 어도비아크로벳리더(Adobe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어도비아크로벳리더는 Play스토어(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아 설치한 후 웹진을 보시면 선명하고 깨끗한 화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러피언투어 선전 인터내셔널

이수민 우승 세계랭킹 75위... 53계단으로 '경총'

2015년 KPGA 코리아투어 명출상(신인상) 수상자 이수민이 유러피언투어(European Tour) '선전 인터내셔널'(총상금 280만달러, 우승상금 46만3천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중국 선전 쟈즌 골프장(파72, 7,145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이수민은 악천후로 인한 경기 지연과 일몰로 5개 홀을 남기고 중간합계 14언더파 공동 선두로 라운드를 마쳤다.

이후 재개된 잔여 경기에서 이수민은 16번 홀(파3) 버디에 이어 17번 홀(파5)에서도 이글을 기록하며 최종합계 16언더파 274타를 기록, 공동 2위에 오른 요스트 루이텐(네덜란드)과 브랜든 스톤(남아프리카 공화국)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지난해 5월 'BMW 챔피언십'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안병훈에 이어 약 11개월 만에 한국인으로서 유러피언투어에서 우승을 달성한 이수민은 올 시즌 '메이뱅크챔피언십 말레이시아'에서 대회 최종일 마지막 3개 홀에서 더블 보기를 2개 범하며 준우승에 머문 아쉬움을 한번에 떨쳐냈다.

유러피언투어에서 여섯 번째 도전 끝에 우승컵을 품에 안은 이수민은 지난 2월 'SMBC 싱가포르오픈'에서 우승을 거둔 송영한(신한금융그룹)과 함께 흑독한 잔여 경기 후 값진 승리를 거두며 한국선수의 더욱 강해진 뒷심을 증명했다.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국가대표로 활약한 이수민은 지난 시즌 '군산CC오픈'에서 우승을 차지, 생애 한번뿐인 'KPGA 명출상'(지스윙 신인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골프기자단이 선정한 'Best Player Trophy' 까지 차지하며 2관왕에 오른 바 있다.

한편 2013년 KPGA 코리아투어 '군산CC오픈'에서 아마추어로 우승을 차지한 이수민은 2015년 '군산CC오픈' 우승으로 동일 대회에서 '아마추어와 프로로 우승'을 차지하는 진기록도 남겼다.

이로써 이수민은 2018년까지 유럽피언투어 카드를 획득했으며, 한국 선수로는 유럽투어 9번째 우승의 주인공이 되어 'PGA투어 진출'인 그의 꿈에 한발 더 다가섰다. 유러피언투어에서 올 시즌 첫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거뒀기에 세계골프랭킹 128위에서 75위 이내로 진입 가능성을 높였으며, 올림픽 한국 대표 선수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된다.

출처 KGT(한국프로골프투어)

우리 **인도어 TV 골프** 한판 붙을까?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정확한 구질
현장감 넘치는 그래픽과 사운드
연습과 실전 리운딩을 동시에!

Indoor TV Golf

다들 말하죠 스코어 올드어 안러시!
실외연습장에서 라운딩을 즐기면 내 마음대로!

스코어	62.4m/s
구질	10.00kg
방향	0.00°
스핀	1.00m
백스핀	3050.0rpm
백	155.3m
포어	155.3m
타점	237.3m



롯데마트 여자오픈, 장수연 첫 우승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박성현 우승



동부화재 프로미 오픈, 최진호 우승

관련기사 2면

제9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장수연, 18번 홀 이글 첫 우승



2016시즌 네 번째 대회이자 국내 첫 대회인 '제9회 롯데마트 여자오픈'(총상금 6억 원, 우승상금 1억2천만 원)이 지난달 7일부터 나흘간 제주도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제주 컨트리클럽(파72/6,187야드)에서 막을 올렸다. 이날 대회는 장수연이 극적인 마지막 홀 이글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장수연은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7

개, 보기 1개를 묶어 8언더파 64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의 성적을 내어, KPGA 정규 투어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첫 우승의 감격을 만끽했다. 이로써 장수연은 우승 상금은 1억2천만원을 차지했다. 그는 아마추어 시절인 2010년 9월 현대건설 서울경제 여자오픈에서 준우승을 했고 프로 데뷔 이후에는 2013년 4월 롯데마트 여자오픈, 2014년 7월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2015년 6월 비씨카드 한경레이디스컵 등에서 세 차례 2위를 했다.

이번 대회는 4라운드 막판까지 혼전이 계속됐다. 같은 조에서 경기한 장수연과 양수진이 11언더파로 17번 홀까지 공동 선두로 활약하다 이승현, 이다연이 2~3개 홀을 남긴 가운데 1타 차로 추격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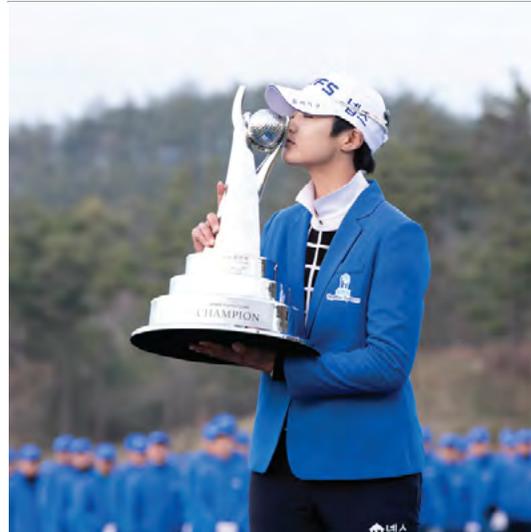
연장의 기운마저 감돌던 상황이었으나 장수연이 마지막 파 5, 18번 홀에서 극적인 이글을 잡아냈다. 순식간에 2타 차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며 승기를 잡았다.

양수진은 18번 홀을 파로 마쳤다. 3타 차에서 추격하던 이승현이 17번 홀 파, 이다연은 16번 홀 보기로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2013년 투어 진출 이후 73개 대회에서 준우승만 세 차례했던 장수연이 마침내 우승을 차지한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장수연은 시즌 상금 1억8천823만 4천54원을 기록하며 상금 부문 1위에 올라섰다.

한편 양수진은 마지막 18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이 홀 왼쪽 러프로 향하면서 11언더파 277타를 기록, 이승현과 함께 2타 차 공동 2위에 머물렀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던 조정민과 아마추어 최혜진은 전반 9개 홀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해 경쟁에서 밀렸다. 최혜진은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4위, 조정민은 8언더파 280타로 공동 6위였다.



삼천리 투게더 오픈 2016 박성현 우승

올 해로 2회째를 맞는 '삼천리 투게더 오픈 2016'(총상금 8억 원, 우승상금 1억6천만 원)이 지난달 15일부터 사흘간 대부도에 위치한 아일랜드 컨트리클럽(파72/6,658야드)에서 열렸다.

지난 해 전인지가 우승컵을 들어 올린 이 대회는 총상금이 1억 원 증액되어 1억6천만원의 우승상금과 함께 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권이 부여됐다.

박성현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의 아일랜드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4개로 2오버파 74타를 쳐 합계 4언더파 212타로 김지영과 동타를 이룬 뒤 연장전에 들어가 이겼다.

지난해 12월의 2016시즌 개막전 현대차 중국여자오픈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을 차지한 박성현은 맨 먼저 2승 고지에 올라 국내 1인자 자리에 올랐다.

강풍으로 출전 선수 가운데 단 한 명만 언더파 스코어를 낸 최종 라운드에서 박성현은 김지영이 3타를 놓친 덕에 연장전으로 끌고 가 승리할 수 있었다.

18번홀(파4)에서 열린 연장전에서 박성현은 두 번째 샷을 홀 3m에 붙인 뒤 파를 지켜 보기에 그친 김지영을 완벽하게 따돌렸다.

제12회 동부화재 프로미오픈, KPGA 개막전 최진호 우승

최진호가 '제12회 동부화재 프로미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5승을 기록, 올 시즌 전망을 밝게 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대우 몽베르컨트리클럽(파72, 7,126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최진호는 전날 일몰로 끝내지 못한 3개홀을 오전 7시부터 진행해 먼저 마무리했다.

이어진 최종라운드에서 최진호는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를 묶어 1타를 줄여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하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최진호는 이번 우승으로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다. 먼저 개인통산 4라운드 최저타수 기록을 달성했다. 최진호는 2015년 제58회 KPGA 선수권대회에서 16언더파 272타 기록한 바 있다.

동부화재 프로미오픈 역대 최저타수 기록도 경신했다. 기존 기록은 2012년 웰리힐리컨트리클럽에서 진행된 본 대회에서 김대성이 기록한 15언더파 273타였다.

KPGA 코리안투어 역대 최저타수 기록도 최진호의 차지가 됐다. 2008년과 2009년 에이스저축은행 몽베르오픈에서 김형성(36, 현대자동차)과 이승호(30)가 기록한 12언더파 276타를 5타나 앞섰다.

전반 9개홀까지 2타를 더 줄여 2위 그룹 선수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은 최진호는 10번홀(파4)에서 2m 파 퍼트를 실패해 보기를 범했다. 하지만 11번홀(파4)과 14번홀(파5)에서 나란히 1m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가슴을 쓸어내렸다.

16번홀(파4)에서 100m를 남겨두고 54도 웨지로 한 샷이 그린을 맞고 다시 굴러 내려와 아웃 오브 바운즈를 범하고 더블보기를 기록했지만 승부에는 지장이 없었다.

최진호는 우승 직후 "대회를 관람하러 직접 오신 갤러리 분들께 감사 드린다. 팬 여러분이 있어야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고 운을 뗀 뒤 "타수 차이가 많이 난 (6타 차이) 상태에서 최종라운드를 맞았다. 이렇게 많은 타수 차이를 앞서면서 마지막 날을 시작한 것은 처음이라 그런지 더 떨리고 긴장됐다. 퍼트도 계속 짧아지고, 거리감을 맞추지 못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2006년 신인상(명출상), 2010년 재기상을 뒀지만 주요 타이틀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요 타이틀이 탐난다. 특히 꾸준한 활동을 나타내는 덕춘상(최저평균타수상)과 새로운 스폰서 영입으로 보너스 상금과 럭셔리 세단까지 주는 제네시스 대상을 타고 싶다. 또한 투어 데뷔해서 아직까지 다승이 없는데 올 시즌 꼭 다승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 KGT(한국프로골프투어)



2016 첫 메이저 마스터스대회, 대니 윌렛 그린재킷 입어

대니 윌렛(영국)이 2016년 첫 메이저 골프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그린재킷을 차지했다.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파72·7435야드)에서 열린 제80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마지막 날, 대니 윌렛은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내며 5언더파 67타를 쳤다. 합계 5언더파 283타를 친 윌렛은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던 조던 스피스(미국)와 리 웨스트우드(영국)를 3타차로 제쳤다. 대회 우승 상금은 180만 달러(약 20억7600만원)였다.

스피스는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노려 전반까지 단독 선두를 질주했으나 12번홀(파3)에서 나온 '쿼드러플보기'의 충격을 극복하지 못했다.

대니 윌렛은 유럽프로골프투어에서 4승을 올리며 세계랭킹 12위에 오른 선수였으나 사실 그리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다. 더욱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 아내의 출산이 임박해 출전을 고민했다. 그러나 다행히 대회전에 무사히 아들을 출산해 순조롭게 출전할 수 있었다.

윌렛의 우승에는 스피스의 붕괴가 결정적 요인이었다. 3라운드까지 공동 5위였던 윌렛은 스피스에 3타를 뒤진 채 4라운드를 시작했다. 그러나 스피스의 고전이 이어졌다. 전반에 버디 5개, 보기 1개를 묶어 4타를 줄이며 단독 선두를 질주했으나 후반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난조에 빠졌다. 파3 12번 홀에서 티샷을 그린 앞 워터 해저드에 빠뜨려 1벌타를 받았고, 세



번째 샷마저 뒤땅을 쳐 물에 빠뜨렸다. 다시 1벌타를 받고 친 다섯 번째 샷은 그린 뒤 벙커에 떨어지고 말았다. 간신히 여섯 번째 샷으로 볼을 그린 위에 올려 한 번의 퍼트로 홀아웃을 했지만, 스코어카드에서 '쿼드러플보기'를 뜻하는 '7'을 적어야 했다.

윌렛은 16번홀(파3)에서 티샷을 홀 1.5m에 붙인 뒤 버디를 잡아냈다. 우승을 예감

하는 순간이었다. 잠시 우승 경쟁 상대였던 웨스트우드는 15번홀(파5)에서 이글을 낚아 윌렛을 1타차로 추격해왔다. 그러나 16번홀에서 3퍼트를 저질러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이날 세계랭킹 1위 제이슨 데이(호주)는 1오버파 289타를 쳐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등과 공동 10위에 머물렀다.

대니 윌렛의 우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

다. 전문가들은 그의 우승을 50대 1로 잡았다. 영국 선수가 우승한 것은 1996년 닉 팔도 이후 20년 만이었다.

윌렛이 마스터스에 등록된 번호는 가장 마지막 번호인 89번이었다.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수차례 고민했기 때문.

출전을 포기하려다 마지막으로 출전 신청을 한 윌렛은 PGA 첫 승을 메이저 우승으로 장식하며 인생 최고의 날을 맞았다.





OKongolf Club Championship

네트워크 온라인게임으로 진행되는 OK온골프 스크린골프대회로써 **각매장, 동호회가 주관하여**,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OK온골프 챔피언십이라 칭하며, 각 클럽대회를 통하여 매장, 동호회의 친목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에게해의 코발트빛 배경과 눈부신 햇살이 만나는

그리스(Greece)

그리스인들에게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고 한다.

낮선 외부인을 봐도 환하게 웃어주며 말을 건네고, 낮에는 카페니온, 밤에는 타베르나에 모여서 먹고 마시며 매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스에서만큼은 흔한 풍경이다.

그런 매력에 더하여 살아있는 문화와 역사가 가득하기까지 하니 그리스야말로 여행자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 탁 트인 코발트빛 에게해를 바라보며 휴양을 즐기고, 유서 깊은 신들의 이야기와 이국적인 풍경에 매료되는 여행.

에게해의 낭만과 자유를 만날 수 있는 그리스로 떠나보자.



신들이 잠들어 있는 신화와 역사의 도시 아테네

아테네 최초의 왕 케크로프스가 지혜의 신 아테나에게 이 도시를 맡기며 이름 붙여진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로 전체 인구의 1/3 정도가 살고 있는 대도시이다. 아테네 지역은 수많은 인문학자와 예술가, 그리고 여행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파르테논 신전, 아크로폴리스 신전, 디오니소스의 극장 등 고대 그리스 문명을 직접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역사의 도시 아테네에서 시티투어를 즐겨보자.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본 여행지, 산토리니

그리스 여행의 정점이라 불리는 '산토리니'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방문하면 평생 함께 할 수 있다는 전설 때문에 신혼여행지로도 인기가 높은 곳이다. 400여 개가 넘는 그리스의 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산토리니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멋진 노을이다. 저녁시간이 다가오면 산토리니의 멋스러운 테라스 카페에 앉아서 코발트빛 에게해 위에 황금빛으로 쏟아지는 환상적인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로마 시대 무역의 중심지, 고린도

그리스인들은 고린도를 코린트라고 부른다. 이곳은 그리스 무역의 요충지 중 하나였던 곳으로 펠레폰네소스 관문 도시이며, 육상 교통의 요지이자 에게해를 이어주는 해상 교통의 중요 지역이었다. 특히, 고린도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고

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이며 깎아지른 듯한 양쪽 절벽 사이로 파란 물길이 지나가는 풍경이 무척 인상적이다. 그리고 고린도에는 그리스를 대표하는 유적인 아폴로 신전이 자리 잡고 있기에 많은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관광객들을 위한 플라카 지구

아크로폴리스 언덕 기슭 북쪽에서 동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구시가지로 매우 복잡하고 좁은 골목으로 이어져 있다. 모나스티라키 역 주변으로 기념품점이 모여 있어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거린다. 특히 판드로소 거리 주변에 재미있는 상점들이 많아서 구경만 해도 즐겁다. 천천히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흥정해서 사면 된다. 노을이 질 때는 선술집인 타베르나가 활기를 띠는데 만물린처럼 생긴 전통악기 부즈키로 연주하는 그리스 연가와 민속무용, 전통 음식을 즐길 수도 있다.

아찔한 경치를 즐기는 아크로폴리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 고대에는 아무나 함부로 올라갈 수 없었던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테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이다. 해발 150m 언덕이라 시내 어디서나 보이며, 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테네의 전망도 일품이다. 아크로폴리스를 돌아볼 때 언덕 가장 자리를 따라 거닐며 시내를 내려다보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로 아래 원형극장인 디오니소스 극장,

몇 개의 기둥만 남아 있는 제우스 신전, 히드리아누스문이 보일 것이다. 현대적인 건물 사이에 폐허처럼 남아 있는 유적이라 금방 눈에 띈다. 아크로폴리스의 계단은 대리석이라 미끄럽고 가파르다. 미끄러운 신발이나 슬리퍼를 신고가면 다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의 수호신인 지혜의 여신 아테나를 모시던 신전, 익티노스의 설계로 기원전 438년에 완성하였다. 가까이서 보면 볼록하게 올라온 바닥이나 불규칙한 기둥 간격으로 인해, 건축이 잘못되었나? 싶을 정도로 보이지만, 이는 착시현상을 감안

해 멀리서 볼 때 가장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한 것이다.

신전은 넓이 30m 길이 70m로 지붕 밑의 장식은 빨강, 파랑, 금색으로 치장되어 있다. 본전에는 12M 높이의 아테나상이 있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거대한 여신상의 피부는 상아, 갑옷과 투구는 황금, 방패 안쪽의 뱀의 눈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원형은 고고학 박물관에 있는 로마시대의 모작을 보면 알 수 있다. 1687년에 베네치아 군대의 포격으로 신전은 훼손되었으며 그 후 신전 정면 중앙부를 장식한 부조 등 주요 유물은 모두 약탈당해 런던의 대영박물관에 옮겨져





있다. 지금도 그리스 정부의 문화재 반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에렉테이온 신전

이오니아 양식의 작은 신전, 기원전 406년에 완성된 것으로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6명의 아름다운 소녀상이 무척 인상적이다. 하지만 외부에 공개된 것은 모조품이며 진품은 바로 옆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태양의 후에 촬영지 자킨토스

서울에서 그리스 자킨토스 섬으로 가려면 우선 비행기를 타고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까지 가야 한다. 현재 직항 노선은 없으므로 런던, 로마, 파리 등 유럽을 경유해서 가면 된다.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하면 배와 비행기를 이용해서 자킨토스 섬으로 갈 수 있다. 버스의 경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킨토스행 버스 티켓을 구매하면 이 버스가 페리에도 탑승해서 자킨토스섬까지 갈 수 있다. 항구에 도착하면 짐은 버스에 놔두고 승객들은 페리에 탑승하는 시스템이다. 비행기는 하루에 한 번 1시간, 버스는 하루 3번 6시간이 소요된다.

자킨토스 섬은 특히 유럽인들이 사랑하는 휴양지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곳에 가면 '태양의 후에'에서 송중기와 송혜교가 난파선에서 대화하던 나바지오 해변을 꼭 가보자. 나바지오 해변은 초승달 모양으로 둘러싸인 암벽 아래 난파선과 하얀모래, 그리고 에메랄드 빛 바다가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송혜교) 여기 이 배는 왜 이렇게 있죠?" "(송중기) 흘러서, 아름다운 것에 흘러서 이렇게 되죠." 드라마 속 둘의 대화가 떠오를 것이다. 또한 자킨토스섬은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라 스쿠버다이빙, 베이스점프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몸도 마음도 아름다운 슈퍼모델 모임 '아름회' "봉사활동을 통해 오히려 힐링합니다."

아름회는 슈퍼모델 선발대회 수상자들의 친목 모임으로 비영리단체이다.

각종 봉사활동과 자선바자회를 추진하며 20년 넘게 소외된 계층과 함께 해온 아름회의 수장인 김효진 회장을 만나 봉사 이야기를 들어본다.



봉사활동 통해 힐링하다

슈퍼모델 입상자들로 구성된 '아름회'는 4회 슈퍼모델 출신들을 주축으로 창설됐다. 이들은 친목 도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과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모임을 통해 유대감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죽을 때까지 함께하고 싶다는 김효진 회장의 다짐과 같이 아름회는 20년의 역사와 200여명의 회원 수를 자랑한다. 그녀에게 봉사활동을 하게 된 계기를 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군가를 도와주려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봉사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람마

다 즐거움을 느끼는 순간이 다르듯 저는 봉사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봉사를 하고 나면 뿌듯해지는 게 오히려 제가 더 힐링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봉사를 통해 얻은 게 더욱 많아 오히려 그분들께 '제가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쏟아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누구에게나 사는 게 녹녹치 않지만 좀 더 힘든 처지의 분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삶의 무게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고 저의 힘듦은 잊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듯 봉사가 몸에 밴 그녀에게 가장 영

향을 많이 준 것은 부모님이다. 어머니가 유치원을 운영해 봉사와 배려가 묻어나는 교육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고 아버지도 남몰래 어려운 이웃을 도와 오셨기에 자연스럽게 봉사와 선행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다고 한다.

"집안 행사를 하다가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막연히 서울역의 노숙자들을 떠올리며 부모님과 함께 그들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김밥만 싸서 갔는데 부족한 것 같아 생수도 한 병씩 사 드렸어요. 하지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말로만 들었을 뿐 직접 뵈게 되니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였죠. 좀 더 도움 방법이 없는지를 찾다가 케이터링서비스를 하는 지인에게 부탁해 남은 음식을 매주 토요일마다 갖다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감사해 하는 반면 자존심 상해하는 분도 있었죠. 하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묵묵히 계속 하다 보니 다섯 달 쯤 지나서 집에 돌아가려는데 차가 깨끗이 세차가 돼 있었어요. 종이로 접은 냄비받침을 만들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지난 몇 개월 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은 고된 삶으로 인해 감정 표현에 인색했을뿐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들이었죠. 고맙다는 표현을 잘 안했었는데 무엇보다 그분들 마음이 열렸다는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크고 작은 봉사를 계속 하다 보니 주위에서 도와주려는 이가 많아져 봉사가 일상이 된 그녀에게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들어보았다.

"아름회도 작은 단체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봉사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체들의 연탄배달이나 김장 나눔 행사가 모두 필요한 분들에게 보내지겠지만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더욱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미혼모의 아이들을 위해 돌잔치를 해 주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미혼모들이 노출을 꺼리게 돼 안 좋은 일이 생길수도 있거든요. 30가족의 돌잔치를 할 예정이었는데 다 못 채우고 다문화가정으로 반을 채웠었죠. 그때가 너무 아쉬워서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온다면 꼭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봉사 바이러스에 전념되다

아름회의 대표적인 봉사활동은 천성원 햇빛보기 행사와 대한사회복지회의 영·유아

돌봄, 자선 패션쇼와 바자회 등 이다. 김 회장이 건넨 행사 사진은 봉사의 생활화로 더 밝고 건강한 긍정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발산되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 일을 같이하며 전파된 봉사바이러스는 다른 이에게 전염돼 또 다른 시너지를 낸다. 그렇기에 좋은 취지로 도와주는 동료가 있을 때 가장 신이 난다는 그녀다. 거제도에서 자선 웨딩패션쇼를 계획 중인 그녀는 최근 특별한 동지를 얻었다. 바로 10여 년 간 자신의 헤어메이크업을 담당해 온 토털 헤어뷰티샵 '플리페(Pllipe)'의 원장 정진희 대표다. 작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개최를 연(緣)으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는 거제도 유명 관광지라서 재정적인 문제는 없지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았다. 거제 지역의 혼혈아와 고아 및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다. 김효진 회장은 이들을 이번 행사에 초대해 슈퍼모델들과 함께 옥상스파 및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정진희 대표도 이번 행사의 미용봉사자로 나서 아이들의 미용도 손수 해준다. “효진씨와는 처음부터 고객과 원장으로 만난 인연이 아닙니다. 워낙 살갑게 서로를 챙기다 보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내게 됐죠. 이후 효진씨의 공식석상의 모든 일정은 저희 헤어뷰티샵에서 시작하게 됐죠. 효진씨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저는 선뜻 도움을 줄만한 계기가 없었어요. 제 아이도 여러 봉사단체의 활동을 보고 ‘엄마 우리도 누군가를 도왔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이번 행사에 돈 보다는 제가 가진 재능을 기부할 수 있기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배려하면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패션쇼가 소외계층을 위한 것이기에 화려한 것 보다 열악한 환경의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새겨주고 싶습니다.” 23년 경력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진희 대표의 노하우와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플리페’는 ‘폴알’이라는 단어에서 따 왔다. 청담동에 위치해 가족단위를 비롯한 다양한 고객층이 이용하고 있으며 다른 볼일이 있거나 잠깐 들린 사람에게도 친절함이 배어나도록 한 것이 차별성이다. “지금까지는 방법을 몰라서 기회가 없었지만 미용 봉사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요즘 다들 사는 게 팍팍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유치원을 운영해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고 제 아이에게도 나눔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교육이며 가족 간의 배려와 소중함을 더 느끼는 계기가 아닐까요. 제게는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이 바로 힐링이거든요.” 이렇듯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서로 간에 더 시간을 내고 노력하는 게 화목한 가정을 위한 노하우라고 강조하는 정 대표의 봉사 바이러스에 전염돼 있었다. 앞으로도 다른 분야의 봉사자를 찾으며 좋은 릴레이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이다. 이같은 정대표의 바람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김효진 회장은 앞으로 계획을 이같이 말한다. “우리만으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지만 지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더욱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아름희 자체도 상당히 고무돼 있어요. 몸은 힘들고 피곤하겠지만 좋아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뿌듯합니다.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 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거예요.”



저는 봉사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봉사를 하고나면 뿌듯해지는 게 오히려 제가 더 힐링이 됩니다



나이키 골프, 베이퍼 플라이 프로 블랙아웃 드라이버

나이키 골프가 베이퍼 플라이 프로 드라이버의 리미티드 모델인 '베이퍼 플라이 프로 블랙아웃 (VAPOR FLY PRO BLACKOUT)' 드라이버를 출시했다.

이번 제품은 베이퍼 플라이 프로 드라이버의 컬러 에디션으로 기존 드라이버 퍼포먼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헤드, 샤프트와 그립까지 디자인 전체에 블랙 컬러를 적용해 시크한 감성은 물론 정교하고 파워풀한 이미지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보다 높은 런치 앵글로 향상된 비거리를 제공하며, 460cc의 페어 셰이프(pear-shape) 헤드 타입으로 다양한 샷을 컨트롤하는 중상급 골퍼에게 적합한 모델이다.

베이퍼 플라이 프로 드라이버와 같이 30% 가벼워진 플라이트웨이트 크라운을 적용해 낮은 무게중심으로 스핀량이 줄어들고 관용성을 향상시켰다. 페이스 중심보다 주변이 얇아 반발력이 뛰어난 하이퍼플라이트 페이스, 탄력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뉴 컴프레션 채널, 헤드 양쪽으로 무게를 분산시킨 캐비티백 구조, 에너지 전달력을 강화한 플라이빔을 테크놀로지 등이 적용됐다. 이 밖에도 8.5도부터 12.5도 까지 5가지 로프트 각도와 3가지 페이스 앵글을 독립적으로 조절해 15가지의 셸프 튜닝이 가능한 플렉스로프트2.0 호젤을 적용해 적용해 본인에게 적합한 탄도와 구질을 설정할 수 있다. 샤프트는 밀도가 높아 임팩트시 탄력있고 안정성이 높은 미쓰비시 레이온의 DIAMANA S+ BLUE BOARD 60을 장착했다.



유라이크, 올인원 스윙분석기 '티틀' 출시

(주)유라이크(대표 윤정상)가 지난해 세계적 펀딩사이트인 킥스타터에서 9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금한 바 있는 올인원 스윙분석기 '티틀(ti.ttle)'의 국내 판매를 개시한다.

티틀은 클럽별로 예상 비거리(캐리기준)를 알려 주고 헤드스피드, 템포, 구질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여 골퍼로 하여금 스스로 스윙을 분석하고 교정하는데 활용된다.

티틀의 장점은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며, 데이터가 분석되는 즉시 제품 액정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습 시 굳이 스마트폰을 꺼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연습장, 인도어 등 언제 어디서나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보다 자세한 분석이 가능하다. 매일 스윙을 한 데이터를 기록해 주며, 티틀 유저 간 비거리 랭킹도 지원되는 등 분석기를 넘어 재미의 요소도 더했다. 또한 클럽별 사용자 보정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세밀한 나만의 티틀로 만들 수 있다.

사용 방법은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고 스마트폰과 티틀을 블루투스로 연결시킨 후, 티틀을 클럽 샤프트에 장착해 사용하면 된다. 제품의 무게가 7.9g으로 방울토마토 반 개의 무게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윙 시 무게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

(주)유라이크 윤정상 대표는 "티틀은 지난해 킥스타터에서 33개국 590명 후원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제품이며 특히, 자신의 비거리를 잘 모르는 중·초보 골퍼들에게 탁월한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며 "티틀과 함께라면 언제 어디서나 볼을 칠 필요도 없이 빈 스윙만으로도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윙에 대한 감각을 평상시에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혼마골프 신제품 Be zeal 525 시타회 개최

(주)혼마골프 한국지점(지점장 이치카와 키요타카)은 신제품 Be ZEAL(비즐·열정을 품어라)의 발매와 함께 신제품 클럽 시타회 이벤트를 시행한다.

신제품 'Be ZEAL 525'는 혼마 소속 선수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대응해왔던 제품 개발력을 바탕으로 비거리 증가와 누구나 쉽게 칠 수 있는 클럽으로 출시된 제품이다.

드라이버는 비거리의 3요소(볼의 초속·타구각·스핀량)를 최적화해 압도적인 비거리를 내고, 페어웨이 우드는 지금까지 없었던 높은 타구각으로 더 큰 비거리를 내며, 유틸리티는 핀을 직접 노릴 수 있는 강한 탄도를 낸다. 또한 아이언은 티탄 페이스 인서트를 최대로 넓혀 반발 영역을 확대하고 최대의 비거리를 가능케 했다. 오직 'Be ZEAL'을 위해 개발한 'VIZARD for Be ZEAL' 샤프트는 골퍼의 파워를 볼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혼마골프만의 기술 'EPT-tech₁(Efficient Power Transmission Technology)'를 채용했다. 이에 따라 임팩트 시의 파워 손실과 헤드의 흔들림을 줄였고, 안정된 비거리와 방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샤프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혼마골프는 Be ZEAL의 경험을 제공하고, 보다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해외 다른 골프연습장에서 시타회를 갖는다.

시타회는 5월 6일~7일(14시~17시) 김미현 골프클럽(인천)에서, 5월 8일~9일(18시~21시)에는 고양CC연습장에서 우선 실시되며, 상반기 시타회 일정은 혼마골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KPGA, 제네시스 브랜드와 후원 계약 체결

제네시스 브랜드, 향후 4년간 KPGA 대상 포인트와 상금순위 후원
 시즌 후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상위 10명에게 보너스 상금 3억원 지급
 2017년부터 시드 카테고리 변경...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상위자 우선 순위 적용



(사)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양희부, 이하 KPGA)와 현대자동차(대표이사 이원희) 글로벌 브랜드 제네시스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남양주 해비치컨트리클럽에서 '대상 포인트'와 '상금순위'에 대한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까지 향후 4년간 후원 협약을 맺었다.

본 협약에 따라 올 시즌부터 2019년까지 KPGA 대상 포인트는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로, KPGA 상금순위는 '제네시스 상금순위'로 재탄생하게 됐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시즌 종료 후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상위 10명에게 총 3억원의 보너스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더불어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위의 영광인 '제네시스 대상' 수상자에게는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를 부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GA에서 대상 수상자를 비롯한 상위 10명에게 보너스 상금이 책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럭셔리 세단을 부상으로 지급하는 것 또한 처음 있는 일이다.

KPGA 코리안투어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시스템은 시즌 각

대회 60위까지의 선수에게 차등 포인트가 부여되며 본선 진출자 중 61위 이하의 선수들에게는 일정 동일한 포인트가 주어진다. 이는 총 상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대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인식에 참석한 국내영업본부 박진 부사장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와 상금순위의 후원을 시작으로 한국프로골프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를 통해 KPGA 코리안투어를 아끼

고 사랑해 주시는 골프 팬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KPGA 양희부 회장은 "KPGA와 KPGA 코리안투어 선수들을 위해 후원을 결심해 준 제네시스 브랜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제네시스 대상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 시즌 동안 KPGA 코리안투어에 꾸준히 출전해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올 시즌 우리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선보이는 데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위 1% 골퍼를 위한 싱크로율 99%의 초정밀 시스템!
100% 리얼리티 필드를 구현하는 유일무이한 시스템!

오케이온골프 스피ن시스템

카메라센서라고 다 똑같은 센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카메라 센서는 볼의 스피ن량을 추정치로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정확한 실측에 의한 스피ن량을 측정하고 그 스피ن량을 실제 움직임과 똑같이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오케이온골프만의 기술력입니다.

초정밀고속 카메라

- 5대의 카메라가 매킹볼의 스피ن량을 입체적으로 실측하여 백스핀과 사이드스핀량에 따른 모든 구질을 표현합니다.
- 헤드, 드로우, 슬라이스, 혹은 뽀른 피치 런, 러닝어프로치, 로빙 어프로치 등 숏게임도 완벽하게 구현됩니다.
- 값이싼 깃이는 대로 풀리던 '뽀른'은 대로 찌릿한 손맛을 그대로 재현하여 그린에서 볼을 멈추거나 백스핀을 걸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볼의 위치로 편안한 라운딩을 제공하며 타석에 출몰된 센서가 없어서 필드에서 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착우타석 검출)
- 퍼팅 연습 시 런치앵글, 방향각, 사이드 스핀을 분석하여 최적의 퍼팅 스트로크를 완성시켜 드립니다.

Lightning-Halo 엔진

- 실제 사정처럼 느껴지는 청당 그래픽 효과
- Full HD(1920*1080)를 베이스로 제작하여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 공정한 러프의 질감과 헤비러프의 깊은 풀까지 자연스럽게 렌더링 됩니다.
- 설치 환경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로 사공이 가능하며 라운드 스크린도 지원됩니다.

자연을 담은 "네이처" 프로그램

- 물리학, 공분광학, IT공학, 프로그래밍의 전문 지식이 곳곳에 녹아있는 첨단 프로그램
- 지형의 고저, 중력, 바람의 저항, 풀의 저항, 지면의 충돌계수, 지형의 단상계수 등 자연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하여 실제 필드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 새로운 MSBS 엔진 적용! 정확한 임팩트의 퍼팅한 손맛을 그린에서 느껴보세요. 볼이 스피ن량에 따라 살아서 움직입니다.

러블리 캐디와 함께 라운딩 하세요~

- 안락한 음성지원으로 라운딩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 상황별로 어떤 샷을 골라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 특별한 미니 캐디의 간단한 원포인트 레슨으로 골프 실력을 늘리세요.

OK은골프 네이처

맞짱 대결

네트워크 게임으로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상대방과 1:1로 대결하는 방식 공의 움직임, 영상, 채팅(이모티콘, 상용구) 기능 지원 (안드로이드 모바일용만 현재 지원 가능)

★ 기능

- 원격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상대방과 1:1 대결 진행되고 함께 라운딩 하는 듯한 느낌으로 상대방의 실시간 공의 움직임, 영상, 채팅(이모티콘, 상용구) 기능 지원 (안드로이드 모바일용만 현재 지원 가능)
- 대전상대 영상 지원(상대가 모두 카메라가 있을경우)
- 맞짱대결 플레이어
 - 가) 맞짱 플레이어 참여(맞짱플레이어는 비슷한 핸디캡을 가진 가상 플레이어로 언제 어디서든 맞짱을 풀 수 있게 도와줍니다.
 - 나) 맞짱 플레이어와 대전을 하게 되면 동영상과 이모티콘이 서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다) 맞짱 플레이어의 아이디는 oknxxx입니다.



(맞짱 대결 상대)



(함께 플레이하는 모습)



(이모티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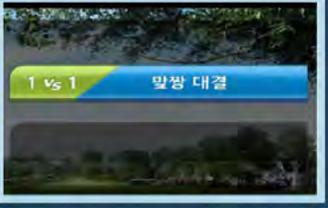


(앱과 연동)

★ 게임 참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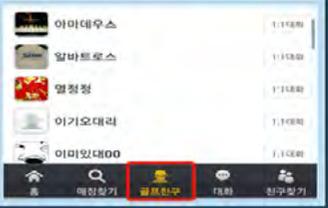
- 1 게임 메뉴 **동시타입** 선택
- 2 1 VS 1 맞짱대결





★ 앱 채팅

- 1 OK은골프 앱 메뉴에서 **골프친구** 선택
- 2 맞짱대결에서 유저 선택하여 채팅





- 게임 티샷 후 자동친구 추가되어 친구 등록 가능
- 게임 중반 플레이어가 자동친구 등록을 원치 않을 경우 '앱, 홈페이지' 환경설정에서 '해제' 로 변경

- 3 앱에서 채팅 시 이모티콘, 상용구는 상대 게임화면에 표시됨.



★ 룰렛

1. 총 플레이 시간

구분	Par 3	Par 4	par5 (par6)
시간	2분	2분 30초	3분 30초

- 총 플레이 시간이 지나면, 30초 3회 추가시간을 줌.
- 30초 3회가 지난 때마다 +1 벌타 발생
- 시간 제한 벌타 4회일 경우 상대 플레이어에 피해 주는 행위로 간주, 게임 강제 종료 처리

★ 승점률

= 18홀 완료 시

구분	승리	무승부	패배	게임중도포기
승점	+3	+1	0	-1

- 2연승시 계산: 승점(+3) + 2연승(+2) = +5점
- 4연승시 계산: 승점(+3) + 4연승(+4) = +7점


앱에서 맞짱대결 부킹 안내
바로가기 >

인도어 TV 골프 구성



초고속 카메라 센서 장착



55인치 대형TV



오케이은골프 네이처 프로그램

- 1 초고속 카메라 센서 장착
 - 정확한 구질**
2대의 초고속 카메라 센서가 백스핀, 사이드 스핀량을 측정하여 정확한 구질을 구현합니다. 실제볼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플레이 하기 때문에 정확한 구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 골프연습의 새로운 기준 제시**
백스핀량, 사이드 스핀량, 발사 각도, 방향각등을 절정하면서 연습하기 때문에 정말한 연습이 가능합니다.
- 2 55인치 대형 TV
 - 대형모니터를 통해서 코스를 확인하여 어떤 샷을 구사할 지 결정
 - 티샷을 하여 실제로 볼이 날아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
 - 대형 모니터를 통해 코스에서 사실적인 구질로 구현되는 것을 확인
 - 코스 환경에 따라서 실제 코스에 나온 것과 똑같이 플레이
 - 실제 날아가는 볼을 보면서 플레이 하기 때문에 몰입도가 실내 스크린보다 훨씬 높습니다.
- 3 오케이은골프 네이처 프로그램
 - 오케이은골프에서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최신 골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자체 개발 그래픽엔진을 사용하여 국내, 해외, 가상골프장을 구현
 - 나무와 도로 등에 충돌계수를 반영하여 속이나 슬라이스를 구사해야만 탈출 가능
 - 네티즌, 볼구질, 남은거리, 감속율등 완벽한 음성 서비스 지원

실제 사진처럼 뛰어난 그래픽 효과

풍성한 리프, 실랑거리는 볼결, 뛰어난 현장 묘사,
사이드 스핀과 백스핀량에 따라 정확한 구질 구현
백스핀 량에 따라 볼의 비거리와 런이 달라짐

피칭웨지 백스핀 량		뒤로 백
9000rpm 이상		1바운드 후 멈춤
7000rpm		런딩 후 런이 약 5m 정도 발생
5000rpm		런딩 후 런이 약 10m 정도 발생
3000rpm		

인도어 TV 골프

- 1 실제 라운딩과 연습을 동시에 혼용하는 최상의 골프 연습 시스템
- 2 정확한 구질과 편리한 스윙분석
- 3 실제 코스에서 플레이 하는 듯한 사실감
- 4 세밀한 구질구현으로 몰입감 최고
- 5 초고속 카메라 센서장착
- 6 시시시찰 밤낮 구분없이 플레이 가능
- 7 스크린골프를 싫어 했던 프로와 싱글 골퍼들도 대만족!

위클리(Weekly) 프로(핸디캡)팀 도전!

이벤트 기간 : 2016년 04월 04일 ~ 2016년 07월 03일

핸디캡 대회로 핸디캡(20게임 이상시) 생성 유저만 참가 가능하며 팀(2~4명)으로 구성진행됩니다.

초기값 셋팅 포인트 250,000P

권가제에 따라 포인트 실시간 누락



1. 참가자격: 핸디캡 생성유저 (20게임 이상 진행시)
2. 참가비: 1인 2,000p
3. 대회구분

팀핸디캡상	핸디캡이 생성된 유저로 팀(2~4인)이 플레이하여 본인핸디캡 스코어의 상위 2명의 성적을 합산
팀메달리스트상	핸디캡 없이 라운딩한 스코어로 팀의 상위 2명의 성적을 합산
4. 대회핸디캡: 유지(하한:∞, 상한:+9)
주우승자(+2), 준우승자(+1) (3개월 단위로 초기화)
5. 중복시상 불가: 팀핸디캡상 우선시상이며 니어, 장타시상은 중복허용
6. 유의사항: 팀베스트, 팀메달리스트 수상자(1,2,3등)인경우 동영상에 포함됩니다.
플레이어등급은 투어프로로 설정됩니다.

퍼팅의 기술

드라이버, 페어웨이우드, 유틸리티우드, 아이언, 어프로치 그리고 퍼터와 같은 모든 클럽에는 그것에 맞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18홀을 라운드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클럽은 바로 퍼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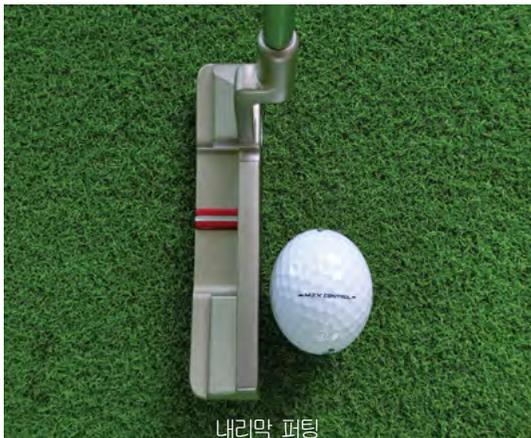
누구나 퍼팅의 중요성을 알지만 연습은 소홀히 한다. 누구나 쉽게 연습하고 실전에서 잘 쓰이는 퍼팅의 기술을 배워보자.



일반적인 스트로크



오르막 퍼팅



내리막 퍼팅

오르막 퍼팅기술, 내리막 퍼팅기술

(1) 오르막 퍼팅 볼 위치

오르막 라이 퍼팅 시 아래의 사진과 같이 힐 쪽에 볼을 놓고 친다. 샤프트에서 가까운 부분의 헤드면으로 스트로크를 하므로 에너지 전달이 좋아 공을 좀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2) 내리막 퍼팅 볼 위치

내리막 라이 퍼팅 시 아래의 사진과 같이 토우 쪽에 볼을 놓고 친다. 샤프트에서 떨어진 부분의 헤드면으로 스트로크를 하므로 에너지 전달이 약해져서 공을 가까운 목표에 보내는데 유리하다.

(3) 오르막 퍼팅 기술

1. 공이 홀 컵을 지나가도록 스트로크 한다.
2. 오르막 그린에서는 거리의 조절을 백스윙의 크기로 한다.
3. 스탠스는 칩 샷 하듯이 약간 오픈 스탠스를 취한다.
4. 백스윙은 길게 하고 헤드의 무게감으로 임팩트한다. 이때 리듬감을 갖고 시계추의 원리를 생각하며 스트로크 한다.

(4) 내리막 퍼팅 기술

1. 퍼터의 앞(토우)쪽으로 스트로크 한다. 팔로우루는 짧게 한다.
2. 그립을 짧게 잡는다. 안정감이 생기고 공의 속도가 줄어든다.
3. 어드레스 시 스탠스는 좁게 하고, 체중은 왼발 쪽에 둔다.
4. 백스윙은 최대한 작고 절제 있게 하고, 임팩트 시에는 손목을 고정하고 짧게 밀어준다.

조민철프로

USGTF회원

Nicklaus / Flick School 수료

신라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생활체육 지도자 3급

前 테디밸리CC 소속 프로

前 골드레이크CC 소속 프로

現 포항 잭니클라우스 두성 골프아카데미 소속



최근 유행하는 크로스핸드 그립 TIP

남녀 골프 세계랭킹 1위인 조던 스피스와 리디아고, 그리고 여자 골프 세계랭킹 2위인 박인비가 사용하는 그립이다.

최근에는 남자 골프 세계랭킹 2위인 로리 맥길로이까지 크로스 핸드 그립을 잡으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국내외 정상 프로들이 크로스 핸드 그립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크로스 핸드 그립을 선호 하는 이유는 정확한 방향성이다.

크로스 핸드 그립은 왼손이 오른손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손목이 꺾이지 않아 일정한 방향을 보내는데 효과적이다.

거리감은 있지만 직진성이 부족한 골퍼라면 효과가 입증된 크로스 핸드 그립을 꼭 추천한다.

중형세단의 새로운 기준, 쉐보레 올 뉴 말리부



신형 말리부는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의 진일보한 엔지니어링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급 최대 길이의 차체와 휠베이스(축거)가 선사하는 스포티한 디자인과 안락한 승차공간을 갖췄다. 여기에 고강도 경량 차체와 최신형 터보 엔진이 발휘하는 극적인 주행성능은 물론, 다양한 첨단 능동 안전 시스템까지 갖췄다.

차세대 GM 중형 세단 아키텍처를 바탕으로 개발된 신형 말리부는 기존 말리부 대비 93mm 확장된 휠베이스와 60mm 늘어난 전장을 갖춰 중형차는 물론 준대형 급을 넘나드는 압도적인 차체 크기를 선보인다.

확대된 차체에도 불구하고 초고장력 강판 사용 비중 증가와 진보한 차체 설계 기술을 통해 이전 모델 대비 130kg의 차체 경량화를 달성해 동급 최고 수준의 연료효율과 다이내믹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중형 세단 디자인의 정수

신형 말리부는 동급 최대를 자랑하는 4,925mm의 차체 길이에 극적인 비례감과 스포츠 쿠페 스타일의 감각적인 라인을 결합해 쉐보레 제품군이 선보이는 새로운 시그니처 디자인의 정수를 담았다. 특히, 매끄럽고 날렵하게 뻗은 HID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LED 주간주행등이 연출하는 선명하고 스타일리시한 감각은 쉐보레 제품 라인업의 새 패밀리룩을 상징하는 강렬한 듀얼 포트 그릴이 그려내는 웅장하고 다이내믹한 인상을 완성한다.

또한 차량 후방의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위해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적용한 LED 테일램프와 에어로 스포일러 기능을 고려해 디자인된 트렁크 라인, 그리고 언더바디 에어로 패널이 차량 하부의 공기를 제어하며 최적의 효율을 돕는 한편,

LED 주간주행등과 길게 뻗은 LED 후방 보조제동등은 스포츠 쿠페를 연상시키는 날렵한 C필러와 만나 한층 감각적이면서도 기능에 충실한 후면부 디자인을 완성했다.

쉐보레 듀얼 콕핏 인테리어를 재해석하고 스티어링 휠, 계기판은 물론, 기능 스위치 버튼까지도 완전히 새 디자인을 적용한 신형 말리부는 차급 이상의 넉넉한 실내공간을 확보하고 한층 인체공학적 실내 레이아웃으로 운전석 및 동반석과 더불어 2열 실내 거주성을 대폭 확장했다.

특히, 센터택 분리형으로 설계된 센터페시아 하단은 운전석과 동반석에 한층 여유로운 무릎 공간을 제공하며, 33mm 늘어난 2열 레그룸과 낮게 설계된 중앙터널은 넓은 실내공간과 더불어 승객의 거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다운 앤 어웨이(Down & Away) 디자인 키워드를 주제로 설계된 센터페시아는 극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센터페시아 상단 라인과 조화를 이뤄 탁월한 전방 개방감을 선사하며, 직관적인 새 디자인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결합해 간결한 통일감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새 말리부의 인테리어에 광범위하게 적용된 가죽 트림, 우드 데코와 부드러운 촉감의 마감 소재는 실내 곳곳에 배치된 은은한 아이스블루 실내 무드 조명과 함께 탑승객을 안락하게 감싸며 품격 있는 인테리어를 완성한다.

중형 세단 파워트레인의 새 기준

신형 말리부는 동급 최고 연비를 자랑하는 1.5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과 동급 최대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2.0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 엔진을 채택했다. GM 신형 터보 엔진 라인업의 4기통 1.5리터 엔진은 166마력, 25.5kg.m의 월등한 최대 출력과 토크를 바탕으로 기존 2.0리터 자연흡기 엔진을 완벽히 대체하는 한편, 기본 탑재된 스탬 앤 스타트 기능과 다운사이징 경량화를 통해 복합연비 13.0km/L에 달하는 동급 최고 수준의 효율을 실현했다.

고성능 고효율 1.5리터 터보 엔진과 맞물린 3세대 6단 자동변속기는 검증된 내구성을 통해 효율적인 엔진 구동력 전달과 부드러운 변속감으로 향상된 주행 품질을 제공한다.

4기통 2.0리터 직분사 터보 엔진은 253마력의 동급 최대 출력으로 기존 중형 세단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던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사하며, 최적의 변속 타이밍으로 최대 출력 260마력까지 완벽히 대응하는 3세대 6단 자동변속기와 결합해 폭발적인 가속 성능과 차급을 뛰어넘는 주행감을 연출한다.



바닷길을 따라 난 비경(秘境) 비체펠리스



서해안의 아름답고 고즈넉한 바닷길을 따라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숨은 진주 같은 휴양지가 바로 비체펠리스다.

푸른 빛이 넘실대는 바다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갯벌, 바닷길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까지 그 모든 것을 무창포의 비체펠리스에서 누릴 수 있다.

자료제공 비체펠리스1588-0009 (내선1번)

아기장군과 석대도 이야기

무창포해수욕장 인근에는 '장군봉', '당섬', '석대도'라는 지명이 있다.

구전에 따르면 옛날 이곳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아이를 출산하다 그만 아이엄마는 죽고 아이만 살아남게 되었다. 가난한 농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후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어여뻐나 마음씨는 곱지 않았다. 다정하지 못한 계모의 보살핌에서 아기는 돌볼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홀로 미음을 먹는 등 범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걷기를 시작해서는 모두가 잠든 밤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무술을 연마하고 새벽 닭소리를 들으며 귀가하는 등, 어린 아기의 힘과 기상이 하늘을 무너트릴 위세로 자라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무창포 앞바다 가운데 작은섬에는 해룡이 바다를 지키며 신통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한 장수의 주선으로 아기장군과 해룡의 힘겨루기를 제안하였다. 마침내 섬에 있는 해룡과 육지의 아기장군이 줄다리기를 하였는데 그 힘으로 땅이 해지고 섬이 움직이며 승부를 가리지 못하였다.

이런 소문을 접한 아기의 아버지는 한편으로 대견해 하면서 당시에 이런 장수감은 나라에서 없앤다는 사실을 알고 역적으로 몰릴 바에는 차라리 죽일 것을 결심해 어둠이 깔린 저녁에 뒤에서 칼로 찔러 죽였다. 아기장군이 죽는 순간 어디

선가 하얀말이 날아와 천둥소리와 함께 울부짖으며 그 자리에서 죽었다. 뒤이어 황새우리가 떼지어 나타나 한참을 구슬프게 울부짖었고 황새우리가 슬피 울었던 곳이 마치 돌로 좌대를 놓은 것과 같이 생겨 석대도라고 부르게 되었다. 해수욕장 북쪽에 아기장군이 무예를 닦던 장군봉이 있으며 당섬은 아기장군이 태어난 터이다. 해룡과 아기 장군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바닷속 땅이 불끈 솟아 오르면서 형성된 길이 신비의 바닷길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보령 8경의 하나인 천혜의 명소로 불리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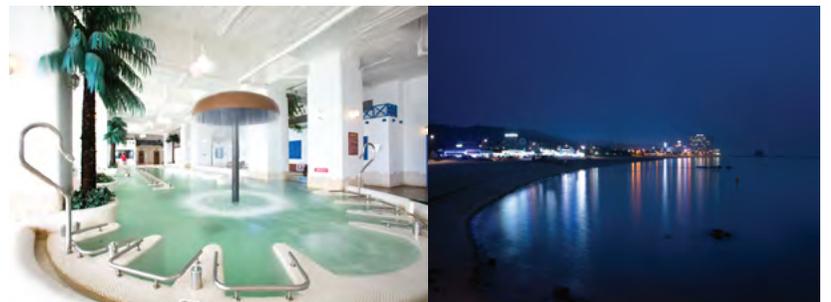
무창포 주꾸미 도다리 축제

무창포항에서는 매년 3월 중순부터 '신비의 바닷길 주꾸미·도다리 축제'를 개최한다.

주꾸미와 도다리는 봄이 시작되면서 잡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나오는 봄의 전령사로 통하며 '봄 주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기력한 봄철 기력 회복에 좋다. 또 타우린 함량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정력을 증강시키는 스테미나 식품이다.

도다리는 가자미과의 생선으로 나른한 몸을 깨우고,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주는 인기 어종으로 양식이 불가능해 자연산으로만 맛볼 수 있다.

주꾸미 축제가 개최되는 무창포항은 봄



나들이 여행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주변관광지

1.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1928년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무창포 해수욕장은 뱃사장 길이 1.5km 수심 1~2m, 백사장 50m, 수온 22도, 경사도 4도의 해수욕장으로 주변에는 송림이 울창하다. 199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무창포 바닷길은 매월 음력 보름과 그믐 사리 때를 전후하여 4~5회 조수간만의 차로 석대도까지 "S"자 모양의 우아한 곡선으로 펼쳐지고 양 옆으로는 파도가 넘실대지만 바다 한가운데 1.5km에 달하는 바닷길을 1시간 20분정

도 만든다.

2. 대천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은 천혜의 빼어난 절경과 조건에 걸맞게 각종 휴양 편의시설, 문화 예술 공간▲아코드 길목 ▲아티스 길목 ▲아베로에스 길목 ▲조각공원 ▲돌공원이 자리잡았다.

지난 1998년 한국일보와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편의시설 주변환경평가에서 전국 해수욕장 중 1위를 차지한 영예를 안기도 했다. 또한 개장기간 중에는 보령시 경영수익사업인 머드 화장품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한 전국 최초이자 최대의 보령머드축제(매년 7월 중) 및 모래 조각전 등이 개최된다.



**KEN-
BLOCK**

www.kenblockkorea.com

켄블락코리아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409-7
대리점문의처 : 031-332-4455 / golf911@nate.com

BEYOND URBAN SPIRIT

BORN IN KOREA

“컬러에 놀라고 성능에 반하다”

STITCH™ HEADCOVERS



Stitch Golf 헤드커버는 미국 North Carolina에서 100% 고급 소가죽으로 제작된 명품 수제커버입니다.

www.stitchgolf.co.kr

본사 (주)레익스타 서울 성동구 성수2가 3동 299-198 B동 B1

TEL 02-401-7054

Balance Renovation

REXY BALANCE GOLF SOCKS

KPGA 공식파트너
한국프로골프협회 공식지정 양말
특허제 10-1102167호

한국프로골프협회가 공식지정한 발명특허가능성골프양말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렉시 골프 양말은 착용만 해도 비거리 UP, 스코어 DOWN 효과를 볼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입니다. 내일 라운딩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REXY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p>정확한 임팩트 스텝의 각도를 예민한 특수 소재로써 정확하게 안정감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p>	<p>비거리 증대 화제를 견고하게 안정시켜 편안함에 힘입어 정확한 임팩트가 가능합니다.</p>	<p>정확한 피팅 화제를 견고히 잡아줌으로써 상해의 위험이 없습니다.</p>	<p>스웨이 방지 양말의 다리, 무릎의 특수 소재가 화제를 견고히 잡아줌으로써 몸의 흔들림을 잡아줍니다.</p>	<p>슬라이스 방지 완벽한 양말의 특수 소재로 인해 완벽하게 열성을 방지합니다.</p>	<p>발의 피로감소 족저근막으로 인하여 라운딩 후 피로감이 줄어듭니다.</p>
---	---	---	---	---	--

Balance Renovation
REXY

(주) 렉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153-5 해인빌딩 2층
TEL : 02-3432-4394 (대표), FAX : 02-3432-4399
판매처 : 전국 신세계백화점 골프샵, 전국 골프장 프레스샵
www.rexysport.co.kr



Transitions

눈 보호와 편리함의 만남, 니콘 트랜지션스

실내에서는 안경렌즈로 편하게, 실외에서는 선글라스로 눈보호와 스타일을 한번에



<p>Grey 자연스러운 컬러와 시력</p>	<p>Brown 가장 높은 대비감도</p>	<p>NEW Green 스타일리쉬 그린</p>
--------------------------	-------------------------	---------------------------

- ✓ 눈 건강 | UV로부터 100% 눈 보호 + 탁월한 눈 피로 감소 기능
- ✓ 편리함 | 하나의 렌즈로 실외와 실내 생활을 동시에!
- ✓ 지속성 | 높은 대비감도의 브라운, 그레이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스타일리쉬 그린!

facebook.com/nikonlenswear
www.nikon-lenswear.co.kr

CALLAWAY CELLAR SELECTION

골프의 전설 캘러웨이! 와인의 전설 캘러웨이!



골프의 전설 캘러웨이의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는 캘리포니아 와인



EASY WINE CO., LTD T. 02. 308. 2134